

2024년 7월 23일

미디어 전용 웹사이트:
asia.si.edu/press

미디어 담당자:
노소연 (Ariel Noh)
ariel@suttoncomms.com

스미소니언 국립아시아미술관이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지원받는 주요 기금을 발표

해외 미술관 한국관 지원사업을 위한 본 기금은 상호 협력을 통해 한국의 문화예술을 널리 알리는데 활용할 예정



미술관내 한국관의 전시 오브제를 감상하는 관람객들. Credit: 미국 스미소니언, 국립아시아미술관

스미소니언 국립아시아미술관은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의 해외 미술관 한국관 지원 사업 대상 6곳 중 한 곳으로 선정되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140 만 달러의 교부금으로 미국 국립아시아미술관의 한국 프로그램을 4 년간 지원하며, 미술관이 한국 문화예술에 대한 더욱 깊은 관람객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도록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을 확대, 실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본 지원금은 향후 4 년 동안 다음과 같은 통합 활동을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NATIONAL MUSEUM of **ASIAN ART**

- 2025~2026 년 국립아시아미술관에서 개최되는 한국 미술대여전의 일환으로 국립중앙박물관과 공동으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소장품 주요 유물 전시 및 안내
- 더욱 젊어진 관람객층과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미술관의 상설 영구 한국 미술 컬렉션 재설치
- 전시장에서 전시중인 작품을 지원하는 공공 및 학술 프로그램 기획과 그 자체로 전시연계활동의 핵심이 되도록 운영
- 지원금의 기타 활동을 지원하도록 직원 교류 프로그램 마련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미국 국립아시아미술관은 향후 5~7 년 내에 미술관 내 한국 미술의 입지를 견고히하는 전략을 정의하면서 구축하기 시작할 것이다.

미술관의 체이스 F. 로빈슨(Chase F. Robinson) 관장은 “2023 년 100 주년 기념 행사에 이어 우리는 큰 추진력을 갖고 미술관의 역사가 두 번째 세기에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 협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라고 표했다. “우리 미술관 역사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면서 한국 예술과 문화의 풍부한 역사를 지속하면서 전면에 내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선례가되는 선물을 준비해주신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임명된 한국 문화예술 큐레이터](#)가 이 지원금을 통해 실현 가능해진 야심찬 프로젝트를 이끌면서 조언할 것이다.

1923 년 프리어 미술관(Freer Gallery of Art)으로 개관하던 당시, 이 미술관은 한국 미술을 전시한 미국 최초의 미술기관 중 하나였다. 현재 한국 컬렉션 전체를 [온라인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세기의 역사로 접어드는 미국 국립아시아미술관은 점점 더 세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지원한 이 기금은 미술관의 네 가지 전략적 계획 목표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첫째, 한국 컬렉션의 진가를 알아보고 보존하며 확대한다. 둘째,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공간을 통해 새롭고 다양해진 청중을 찾아내고 유치한다. 셋째, 아시아의 예술, 공동체, 문화 및 사회에 대한 전시 오브제에서 받은 감상과 영감을 기반으로 서로의 이해를 강화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의적이고 협력적이며 투명하고 자원이 풍성한 미술관 문화를 구축한다.

한국 문화예술 이니셔티브

한국 문화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점차 커짐에 따라, 미국 국립아시아미술관은 영화, 음식, 음악, 공연 등을 통한 한국 문화 프로그램과 더불어, 역사적인 한국 미술작품의 소장을 점점 늘리고 있다. 미술관 100 주년 기념 행사를 진행한 2023 년 5 월에는 그래미상을 수상한 바이올리니스트 제니퍼 고(Jennifer Koh), K 팝 아티스트 에릭남(Eric Nam) 등 한국의 유명 음악인들이 출연해 40,000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참석했다. 2023 년 9 월, 미술관은 추석에 맞추어 한국 문화예술을 기념하는 새로운 연례 행사를 선보였다. 5,000 명이 넘는 방문객이 방문해 연간 행사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일일 행사 중 하나가 되었다.

스미소니언과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 년 4 월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미국 국립아시아미술관은 오랫동안 한국 미술전시를 선보여오고 한국 미술을 학문적으로도 꾸준히 연구해온 이력을 기본으로, 이를 통해 본격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전시인 “[박찬경: 모임](#)(Park Chan-kyong: Gathering)”은 미술관의 새로운 현대 및 컨템포러리 전시실의 개관전임을 알리고 있다. 이는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아티스트 박찬경의 작품이 미국 주요 미술기관 최초로 진행되는 개인전으로서의 의미도 있다.

NATIONAL MUSEUM of **ASIAN ART**

국립아시아미술관은 2024년 4월, 개관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커미션 프로젝트로 특별히 제작된 한국 아티스트 서도호의 조형작품 '[공인들](#)(Public Figures)'을 프리어 갤러리 앞에 설치했다.

스미소니언 국립아시아미술관 소개

스미소니언 국립 아시아 미술관은 아시아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집단적 이해를 심화시키는 방식으로 예술을 보존, 전시, 연구 및 해석하는 데 전념한다. 46,000점 이상의 오브제가 있는 본 미술관은 고대부터 현재까지 중국, 일본, 한국,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및 이슬람 세계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북미 최대의 가장 포괄적인 아시아 컬렉션 중 하나이다. 방대한 소장품을 통해 19세기와 20세기 초 미국 작품의 중요한 컬렉션과 아시아 예술을 직접 조망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 아시아 및 중동 간의 창의적인 협력과 문화 교류를 위한 필수적인 교두보로 기능한다.

1906년의 기부를 초석으로 설립된 국립 아시아 미술관은, 1923년 미술관 개관하였다. 미국과 전세계 관람객, 학생 및 학자를 위한 최상급 자원의 보고임을 자부한다. 전시장, 연구실, 기록 보관소 및 도서관은 워싱턴 D.C.의 내셔널 몰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년 평균 2,700만 명이상이 방문하는 세계 최대 미술관 단지내에 위치한다. 미술관은 1년 364일(크리스마스 휴관) 무료로 일반인에게 공개되며 전시회, 프로그램, 학습 기회 및 디지털 이니셔티브를 전세계 관객이 이용할 수 있다.

###